

# 태국과 말레이 무슬림 간의 알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6, 17세기 분쟁을 중심으로 -

조 홍 국\*

## 목 차

- I. 서론
- II. 역사적 배경
- III. 16세기 타이-말레이 관계의 발전
- IV. 17세기 타이-말레이 분쟁
- V. 결론

## I. 서론

오늘날 태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크게 다음의 네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라오스 및 미얀마와의 국경지역들에 살고 있는 아카(Akha), 라후(Lahu), 리수(Lisu), 메오(Meo), 야오(Yao), 카렌(Karen), 라와(Lawa) 등의 고산족(高山族)들,<sup>1)</sup> 둘째 태국 동북부 이산(Isan) 지방의 라오(Lao)족,<sup>2)</sup> 셋째 중국인 즉 화교(華僑)들,<sup>3)</sup> 넷째 무슬림(Muslim). 이 중 마지막 그룹인 이슬람신자들은 태국의 여러 지방들에 흩어져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무슬림, 파키스탄인, 페르시아인, 참(Cham)인, 인도네시아인, 그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1) 태국의 고산족들에 대해 Gordon Young, *The Hill Tribes of Northern Thailand* (Bangkok: The Siam Society, 1962)을 참조.

2) 이산(Isan) 지방의 라오(Lao)족에 대해 Charles Fenton Keyes, *Isan: Regionalism in Northeast Thail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을 볼 것.

3) 태국의 화교에 대해 G. William Skinner,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57)을 볼 것.

리고 윈난(雲南) 무슬림들의 후손들이 방콕을 중심으로한 중부태국 지역과 치앙마이 등의 북태국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태국의 무슬림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그룹은 빠따니(Pattani), 알라(Yala), 나라티왓(Narathiwat), 사툼(Satun) 등 태국의 최남단 지방들에 살고 있는 말레이인들로서 이 지역 주민의 약 사분의 삼을 차지한다.<sup>5)</sup>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민족적으로 말레이 세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소승불교국가인 태국에 속해 있는 것은 지난 수백년간 타이인들의 팽창주의적인 정복, 그리고 20세기 초 타이 정부와 영국 간의 국경 타협의 결과이다.<sup>6)</sup> 태국 남부의 말레이인 사회와 타이 정부는 역사적으로 적잖은 상호 알력의 관계에 있어왔는데, 이같은 배경에서 무슬림들이 태국 남부지역을 “다르 알 이슬람(dâr al-Islâm)” 즉 ‘이슬람의 집’으로, 태국의 나머지 지역을 “다르 알 하르브(dâr al-harb)” 즉 ‘전쟁의 집’으로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sup>7)</sup> 20세기 중엽에 위의 갈등은 태국의 민족주의자인 피분 송크람(Phibun Songkhram)의 정부(1938-1944)가 소수민족들을 타이화하는 소비니스트적인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심각해졌다.<sup>8)</sup>

한편 말레이인들의 반(反)타이적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후 태국 남부지역에서 이슬람 분리주의운동(separatist movement)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의 핵심이었던 빠따니의 무슬림들은 1947년 방콕정부에게 남부의 4개 지방들이 무슬림들에 의해 세워

4) Werner Kraus, "Der Islam in Thailand : Ueber die Entwicklung und Problematik des Islams in Suedthailand, den islamischen Modernismus und die separatistische Bewegung im Sueden", in Werner Draghun(ed.), *Der Einfluss des Islams auf Politik,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n Suedostasien* (Hamburg : Institut fuer Asienkunde, 1983), p.110.

5) 이에 대해 Surin Pitsuwan, *Islam and Malay Nationalism: A Case Study of the Malay-Muslims of Southern Thailand*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1985), p.17. 1994년 3월 31일 발표된 타이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위의 네 지방의 인구수는 모두 1,766,108 명이었다 (*The Nation*, Bangkok, 10.4.1994).

6) 1909년에 체결된 태국과 영국 간의 말레이반도 국경조약에 대해 David Kent Wyatt, *Thailand : A Short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206-207을 참조.

7) Werner Kraus, op.cit., pp.110-111.

8) 이에 대해 Surin Pitsuwan, 앞의 논문, pp.87-93을 볼 것.

진 지도자에 의해 다스려질 것을 요구했다.<sup>9)</sup> 이슬람 분리주의운동은 곧 확고한 조직체들을 갖게되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서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ani 즉 '빠따니 공화국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of the Pattani Republic), Barisan Revolusi Nasional 즉 '민족혁명전선'(National Revolution Front), Pertubohan Persatuan Pembebasan Patani 즉 '빠따니 연합해방기구'(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 등을 들 수 있다.<sup>10)</sup> 1980년대 초에는 역시 남부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Dawah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방콕정부에 알려졌는데, 이 조직은 기왕의 단체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위의 단체들은 모두 방콕정부에 대한 무장투쟁의 노선을 취했으며 태국 남부에 무슬림들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sup>11)</sup> 태국 남부의 무슬림 지역에서의 소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1993년 8월에 빠따니, 알라, 나라티왓에서 학교방화사건, 불교사원에 대한 수류탄투척, 태국의 한 공병대에 대한 습격, 열차폭파미수 등이 일어났다. 방콕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 남부지방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말레이 분리주의자들이 있다고 본다.<sup>12)</sup>

말레이 무슬림과 타이 정부의 알력관계는 타이 정부가 말레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말레이인들의 저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빠따니를 중심으로한 태국 남부의 말레이 지역과 타이 정부 간의 이러한 알력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이러한 알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심각한 양상에 도달했던 16세기와 17세기가 연구의 주된 대상이다.<sup>13)</sup> 이 중 17세기 연구의 주요 사료는 일본 정부가 1674년에서

9) Werner Kraus, 앞의 논문, p.114, 123.

10) Surin Pitsuwan, 앞의 논문, pp.226-240 : Uthai Dulyakasem, "The Emergence and Escalation of Ethnic Nationalism : The Case of the Muslim Malays in Southern Siam", in Taufik Abdullah and Shron Siddique (eds.), *Islam and Socie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8), pp.229-232.

11) Werner Kraus, 앞의 논문, pp.122-124.

12) *The Nation*, Bangkok 14.8.1993, 23.8.1993.

13) 말레이 분리주의운동의 뿌리를 18세기 말의 상황에서 찾는 Uthai Dulyakasem, 앞의 논문, p.211 ff.을 비교할 것. 이 논문은 1785년 경부터 20세기 초까지 빠따니 말레이 무슬림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1724년 사이에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상선들로부터 수집한 보고들을 모은 '카이헨다이'(華夷變態)로서, 특히 17세기 후반 빠따니와 타이 정부의 관계에 대해 종내의 연구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sup>14)</sup>

## II. 역사적 배경

빠따니 일대의 말레이반도 지역이 타이인들의 영향하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수코타이(Sukhothai) 왕조의 람캄행(Ramkhamhaeng : 1279?-1298)왕 시대였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이 왕의 비문에 나콘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이 수코타이에게 복종한 지역들에 포함되어 있는데,<sup>15)</sup> 나콘시탐마랏은 이미 13세기 전반기에 꾀다(Kedah), 빠항(Pahang) 및 오늘날 빠따니 지역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즉 나콘시탐마랏이 이 지역들과 더불어 13세기 말 이후 짜오프라야(Chao Phraya)강 유역의 타이인들에 대해 조공국의 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빠따니가 왕국으로서 세워진 것은 대개 14세기 중엽에서 15세기 중엽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도 역시 이 기간이라고 본다.<sup>16)</sup>

아유타야(Ayutthaya) 왕조(1351-1767)의 연대기는 이 왕조의 창건자인 라마티보디 1세(Ramathibodi I : 1351-1369)의 재위시대에 태국을 중주국으로 섬긴 지역들에 테나세림(Tenasserim), 나콘시탐마랏, 송클라(Songkhla) 그리고 심지어 말라카(Malacca)와 자바(Java)까지 포함시킨다.<sup>17)</sup> 이 중 말라카와 자바의 태국과의 조공관계는 신빙성이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라카 왕국의 건설이 1400년 이전으로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

14) '華夷變態'에 대해 조홍국, "17세기 타이 역사 사료 연구 - 타이 사료들과 일본 문헌 '카이헨다이 (華夷變態)'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84집(94년 6월호), pp.292-294를 참조.

15) Chulalongkorn University (ed.), *The Inscription of King Ramkhamhaeng the Great* (Bangkok, 1983).

16) A. Teeuw & D.K. Wyatt, *Hikayat Patani: The Story of Patani* (The Hague, 1970), pp.3-4.

17)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64, vol. 38, 39 (Bangkok, 1969), 38, p.2.

다.18) 위의 연대기의 기록은 어쨌든 아유타야 왕국이 그 초기부터 말레이반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타이인들의 말레이반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4세기 말부터이다. 포르투갈인 삐레스(Tomé Pires)의 보고에 의하면 이 때 아유타야 왕국의 이해관계는 빠따니 지역과 싱가포르까지 뻗어 있었다.19) 아유타야 연대기에 의하면 태국의 라메수언 왕(1388-1395)은 치앙마이(Chiang Mai)와 앙코르(Angkor)를 점령하여 많은 포로를 획득했는데, 특히 치앙마이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찬타부리(Chanthaburi)와 파탈룽(Phatthalung), 송클라, 나콘시탐마랏에 이주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파탈룽과 송클라가 행정적으로 아유타야의 통치범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

말라카와 아유타야 왕국의 관계는 15세기 초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명사'(明史)는 1403년 경 말라카가 태국의 속국으로서 매년 아유타야에 조공을 바쳤다고 전한다.21) 말라카와 태국의 이러한 관계는 15세기 초 쟁허(鄭和)의 남해(南海)원정에 참가했던 공쩰(鞏珍)의 여행보고서 '서양번국지'(西洋番國志)에 의해서도 확인된다.22) 그러나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말라카는 수 년 후 아유타야와의 조공관계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며 이후 16세기 초까지 태국과 상당한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23) 이 알력에는 다른 말레

18) Malcolm Dunn, *Kampf um Malakka: Eine wirtschaftsgeschichtliche Studie ueber den portugiesischen und niederlaendischen Kolonialismus in Suedostasien* (Wiesbaden, 1984), p.30 ; Charnvit Kasetsiri, *The Rise of Ayudhya: A History of Siam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Kuala Lumpur :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94.

19)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5 ; Richard O. Winstedt, *A History of Malaya* (Singapore, 1962), pp.45-46.

20)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38, pp.8-10.

21) Richard O. Winstedt, 앞의 책, p.47.

22) 鞏珍, 『西洋番國志』(北京 : 中華書局, 1982), p.15.

23) 『明史』(列傳 第212)(北京 : 中華書局, 1977), p.8398 ; 鞏珍, 『西洋番國志』, p.15 ; Ma Huan, *Ying-Yai Sheng-Lan : 'The Overall Survey of the Ocean's Shores'*, trans. J.V.G. Mil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108-109;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이 지역들도 포함되었는데, 삐레스의 기록에 의하면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사이에 특히 빠항이 말라카의 도움으로 태국으로부터 벗어났다.<sup>24)</sup>

말라카와 아유타야 간의 이러한 알력은 광범위한 해외무역을 추구하던 타이인들이 당시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의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항들 가운데 하나였던 말라카를 아유타야의 영향하에 두기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말라카 무역왕국의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25)</sup> 그러나 동시에 그 배경에는 당시 수마트라, 자바 그리고 말레이반도에서의 이슬람 전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던 말라카 술탄국이 소승불교국가인 태국의 말레이반도로의 팽창에 대해 대항한다는 종교적 동기 또한 추측될 수 있다.<sup>26)</sup>

### Ⅲ. 16세기 타이-말레이 관계의 발전

1512년부터 1515년까지 말라카에 있었던 삐레스에 의하면 께다, 빠따니, 빠항, 뜨렝가누(Trengganu), 끌란탄(Kelantan)은 당시 포르투갈인들이 "시암(Siam)"이라고 불렀던 태국의 속국들이었다.<sup>27)</sup> 삐레스의 이 서술은 반 블릿(Jeremias van Vliet)에 의해 부분적으로 확인되는데, 1636년부터 1641년까지 홀랜드동인도회사의 아유타야 상관장(商館長)이었던 이 네델란드인에 의하면 시암의 라마티보디 2세 (Ramathibodi II : 1491-1529)의 재위기간에 빠따니와 께다 그리고 빼락(Perak)이 아유타야 왕국에 복속(服屬)

*ayutthaya chabap luang san prasoet akson*, in Ongkankha khong khurusapha (ed.),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lae phongsawadan nuea*, 2 vols (Bangkok, 1961), vol 1, p.6 ; Richard O. Winstedt, 앞의 책, p.49, 52.

24) Luís de Matos, "The First Portuguese Documents on Siam", in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on the Occasion of the Celebrations of the Second Centenary of the City of Bangkok (ed.), *Thailand and Portugal : 400 Years of Friendship* (Lisbon, 1982), p.36. Richard O. Winstedt, 위의 책, p.58을 비교.

25) 15세기 초 아유타야 왕국의 국제무역에 대해 Luís de Matos, 위의 논문, pp.33-36에 발췌되어 있는 Tomé Pires의 보고를 참고.

26) D.G.E. Hall,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1981), p.229를 비교.

27) Luís de Matos, 앞의 논문, pp.34-35.

했다. 28)

말레이반도에서의 이러한 국제정치적 변화는 일차적으로 이슬람왕국 말라카가 1511년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멸망당한 것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다야(Barbara Watson Andaya)는 말레이반도의 여러 술탄국들이 말라카의 함락후 말라카와의 이전의 속국관계를 버리는 데 주저치 않았다고 쓴다. 29)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의 요인들도 함께 추측될 수 있다. 첫째 라마티보다 2세치하 그 이웃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시암의 강력한 군사력을 들 수 있다. 30) 즉 포르투갈인들의 말라카 지배가 야기한 말레이 세계에서의 불안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말레이반도의 이슬람왕국들이 군사적으로 강한 아유타야 왕국에 의지했다고 보는 것이다. 31) 둘째 반 블릿에 의하면 라마티보다 2세는 외국상인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여 심지어 이들의 태국에서의 무역행위를 보호하는 법들을 제정했다. 32)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무역정책은 역시 무역을 중시했던 말레이반도 왕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응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다시 위의 첫째 요인인 안전하고 활발한 무역시장을 보장하는 아유타야 왕국의 정치적 안정과 관련된다.

빠항, 뜨렝가누, 끌란탄 외에 빠따니, 껀다, 빼락이 16세기 초에 아유타야 왕국에 속했다는 것은 한편 타이인들의 이 지역들에 대한 증가된 무역적 관심을 시사한다. 빠항은 금, 주석 및 철광으로써 뿐만아니라 쌀생산으로써도 이미 15세기에 부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33) 빼락 역시 중요한 주석 산지였다. 껀다도 큰 주석 산지였으나, 빼레스와 바르보사(Barbosa)에 의하면 후추 생산으로 더욱 유명했으며 또한 말레이반도 서안(西岸)의 중요한 국제무역

28) Jeremias van Vliet, *The Short History of the Kings of Siam*, trans. Leonard Andaya (Bangkok: The Siam Society, 1975), p.68.

29) Barbara Watson Andaya, *Perak, The Abode of Grace: A Study of an Eighteenth-Century Malay State*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18.

30) *Chronique de Xieng Mai*, trans. M. Camille Notton (Paris, 1932), pp.146-148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Bangkok, 1971), p.11.

31)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p.7-8을 비교.

32) Jeremias van Vliet, 앞의 책, pp.68-69.

33) Malcolm Dunn, 앞의 책, p.121.

항이었다.<sup>34)</sup> 이에 비해 빠따니는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상인들과 무슬림상인들이 만나는 곳으로서 인도네시아 및 다른 말레이 지역을 아유타야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중계무역항이었다.<sup>35)</sup>

빠레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유타야 정부는 이러한 말레이 지역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테나세림과 나콘시탐마랏을 통해 행했다. 즉 테나세림의 태수(太守)는 트랑(Trang)과 께다를, 그리고 “매우 부유하고 아주 중요한” 나콘시탐마랏의 태수는 빠항, 프렝가누, 빠따니를 행정적으로 관할했다.<sup>36)</sup> 나콘시탐마랏이 당시 말레이반도의 여러 이슬람왕국들과 아유타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접했던 중요한 정치적 위치는 16세기 중엽에 동남아 일대에서 활약한 포르투갈 모험가 뵤도(Fernao Mendes Pinto)의 여행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sup>37)</sup>

그러나 16세기 초에 있어서의 시암과 말레이 술탄국들과의 이러한 관계는 빠레스나 반 블릿의 정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종주국-속국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말레이반도 자체 내의 여러 정치적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빠락은 다시 이전의 말라카 왕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sup>38)</sup> 한편 아유타야에 속한 빠따니는 1530년대와 1540년대에 빠항, 조호르(Johor), 끌란탄 등과 불화상태에 있었다.<sup>39)</sup>

빠따니와 아유타야의 관계는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급격히 나빠졌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타이 사료들의 하나인 소위 ‘쁘라섯本 아유타야 연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1563-64년에 버마의 군대가 시암의 북부지방들을 정복한 후

34) Luís de Matos, 앞의 논문, p.35, 38 ; Malcolm Dunn, 위의 책, p.123 ; Anthony Reid,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One: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8), p.115.

35)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7.

36) Luís de Matos, 앞의 논문, pp.36-37.

37) Fernao Mendes Pinto, *Merkwuerdige Reisen im fernsten Asien 1537-1558* (Stuttgart: Thienemann, 1987), p.111. 여기에 G.E. Gerini, “Historical Retrospect of Junkceylon Island”, *Journal of the Siam Society*, 2.2 (1905), pp.11-13 과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6을 비교.

38) Barbara Watson Andaya, 앞의 책, pp.19-21.

39)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p.7-8.



아유타야로 진격하자 시암의 왕이 항복하여 버마와 화친조약을 맺었다. 이때,

“빠따니의 왕 프라야 시 수라탄(즉 술탄)이 전쟁을 도우러 왔다가 반역하여 모든 빠따니인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왕궁에 진입한 후 흰코끼리를 타고 왕궁뜰에 서있다가 코끼리에서 내려 딸랭깡(Talaengkaeng)으로 갔다. 이에 (시암)의 首都주민들이 경종을 울리고 빠따니인들과 싸웠는데, 빠따니인들이 많이 죽었다. 빠따니의 왕은 정크뿔 타고 도망했다.”<sup>40)</sup>

빠따니인들의 아유타야에서의 행동은 다른 아유타야 연대기들에서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소위 ‘짚타누맛본 아유타야 연대기’에 의하면 버마의 왕이 그의 군대와 함께 철수한 후, 당시 200척의 배를 거느리고 시암의 전쟁을 돕기 위해 아유타야에 온 빠따니의 술탄은 곧 반역하여 왕궁에 쳐들어왔다. 그 상황을 진작 알지 못한 시암왕 마하 짜끄라팻(Maha Cakraphat : 1548-1569)은 배를 타고 피신했다. 이에 신하들이 모두 왕궁으로 들어가 빠따니인들을 몰아내었고, 이들은 배를 타고 도주했다.<sup>41)</sup>

1563년 버마군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암왕이 그 속국인 빠따니에게 지원군대를 요청했고, 이렇게 하여 아유타야에 온 빠따니 군대가 당시 태국 수도의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은 반 불릿 역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초까지의 아유타야 왕국 역사를 기술한 그의 ‘시암왕들의 역사’에서는 그 폭동의 동기와 결과가 위의 두 사료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빠따니왕과 그의 무장된 300명 군사들은 왕궁을 약탈하고 시암왕과 그 왕위계승후보자를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은 빠따니인들이 시암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후 타이인들의 효과적인 반격에 의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었다.<sup>42)</sup> 즉 반 불릿은 빠따니인들이 아유타야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 구체적

40)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san prasoet akson*, pp.18-19. ‘쁘라셋본 아유타야 연대기’에 대해 O. Frankfurter, “Events in Ayuddhya from Chulasakaraj 686-966”, *Journal of the Siam Society*, 6,3(1909), pp.i-v 참조.

41)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vol. 38, p.98. 다른 아유타야 연대기들도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42) Jeremias van Vliet, 앞의 책, p.74.

인 반란의 동기를 말한다. 어쨌든 위의 타이 사료 세 가지는 모두 빠따니인들의 반란 배경으로서 버마에 의해 패배한 당시 시암의 취약한 상황을 제시한다.

이에 비해 이브라힘 슈끄리(Ibrahim Syukri)는 그 불화의 더욱 깊은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빠따니 왕국사'에 의하면 무자파르 샤(Muzafar Syah)는 시암의 왕과 더욱 친근한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아유타야에 갔으나, 속국의 신분을 경멸하는 시암왕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원한을 품고 빠따니로 돌아왔다. 그후 1563년에 버마가 시암을 친다는 소식을 들은 무자파르 샤는 이전의 냉대를 앙갚음하기 위해 아유타야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200척의 전선과 함께 아유타야에 도착한 빠따니 군사들은 성을 공격하여 많은 타이인들을 죽였다. 피의 복수를 흡족히 한 빠따니인들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던 중, 짜오프라야 강의 하구에서 그들의 술탄이 갑자기 죽어, 그를 그곳에 묻었다.<sup>43)</sup>

사건의 동기와 상황의 전개에 대해 이처럼 상이한 서술들을 보여주는 타이 사료들과 말레이 문헌은 각각 타이인들과 말레이인들의 민족주의적 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빠따니의 술탄이 그의 군대와 함께 1563년 경 아유타야에 간 것은 태국의 왕이 그의 속국들에게 지원군대를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대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빠따니의 술탄인 무자파르 샤가 이때 죽었으며 1564년 경 그의 동생 만주르 샤(Manzur Syah : 1564-1572)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sup>44)</sup>

'히까얏 빠따니(Hikayat Patani)'에 의하면 만주르 샤는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아유타야로 사신을 파견하여 시암과의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에는 빠따니와 이웃 말레이 술탄국들 간의 상황의 부정적 발전과 빠따니 정부에게 비친 아유타야 왕국의 정치적, 군사적 재기(再起)를 추측할 수 있다.<sup>45)</sup> 여기서 두번째 추측과 관련하여 아유타야의 마하 탐마라차(Maha Thammaracha : 1569-1590)왕 정부가 1569년 버

43) Ibrahim Syukri, *History of the Malay Kingdom of Patani*, trans. Conner Bailey and John N. Miksic (Athens: Ohio University, 1985), pp.19-21.

44)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8.

45) A. Teeuw & D.K. Wyatt, 위의 책, p.9.

마에 의한 참패 이후 곧 국가의 행정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특히 국가의 노동력이자 전쟁인력인 부역(賦役)의무자들을 다시 국가의 행정적 통제하에 둔 것, 그리고 1571년에는 나레수언(Naresuan)왕자를 핏사눌록(Phitsanulok)의 태수로 파견한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지막 조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북쪽 지방들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암 정부의 노력으로 이해된다.<sup>46)</sup>

아유타야 왕국은 여러 문헌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미 1580년대에는 버마의 재공격들을 물리치고 캄보디아의 수도에 침입할 만큼 다시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력해졌다. 나레수언왕의 치하(1590-1605) 그 국력은 더욱 강성해져, 버마의 동남부 영토가 타이 군대에 의해 공격, 약탈당했고, 캄보디아가 다시 시암의 조공국으로 환원되었으며, 치앙마이외의 란나(Lan Na)왕국이 처음으로 타이인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sup>47)</sup> 빠따니 역시 시암이 이처럼 대륙동남아에서의 군사적 강국의 위치를 재확립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아유타야의 조공국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1612- 1613년 경 빠따니에 체류했던 영국인 피터 플로리스(Peter Floris)의 보고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에 따르면 시암이 버마에 의한 파괴로부터 회복한 이후 자신에게 복속시킨 지역들 중에 빠따니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빠따니의 두 여왕 라자 이자우(Raja Ijau : 1584-1616)와 라자 비루(Raja Biru : 1616-1624) 모두 왕을 지칭하는 타이어 “프라짜오(phra cao)”의 칭호로써

46)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san prasoet akson*, p.21.

47)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태국의 국내외적인 정치적 발전에 관해 다음의 문헌들을 볼 것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san prasoet akson*, pp.22-29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pp.134-142, 154-204, 207-245, 254- 300 ; Jeremias van Vliet, 앞의 책, pp.78, 81-82, 86-87 ; Thien Subindu, “Intercourse between Burma and Siam as Recorded in Hmannan Yazawin Dawgy i”, *Selected Articles from the Siam Society Journal*, 5 (1959), pp.124-145; *Chronique de Xieng Mai*, p.172 ; Adhémard Leclère, *Histoire du Cambodge depuis le 1er siècle de notre ère* (Paris, 1914), pp.286-292 ; David Potter Chandler, *A History of Cambodia* (Boulder, 1983), pp.83-84.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 또한 당시 시암과 빠따니 간의 관계를 시사한다.48)

#### IV. 17세기 타이-말레이 분쟁

반 블릿은 1637-1638년 경 쓴 '시암왕국 묘사'에서 빠따니와 아유타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빠따니 왕국은 옛날부터 시암의 속국이었고, 그에 따라 매년 시암왕에게 金花 및 銀花로써 복종의 예를 드리며 戰時에는 수천 명의 지원병력을 파송해야 했다. 빠따니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칭호로서 '프라짜오'를 시암왕으로부터 하사받았다. 이로부터 빠따니 정부에 대한 시암왕의 권리가 유래되는 것 같다. 그러나 작고한 여왕이 至上の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야망과 '오랑까야'들 즉 大人들이 대부분 좋아하지않는 몇 대신들, 특히 다또 브사르(Dato Bestaar 즉 Dato Besar)에 의해 행사된 큰 권위로 밀미암아 빠따니인들은 시암 왕국에서의 왕위교체시에 시암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49)

이 인용에서 언급된 여왕은 라자 응우(Raja Ungu : 1624-1635)로서 그 언니들인 라자 이자우와 라자 비루와는 달리 反타이 정책을 취하여, '히까얏 빠따니'에 의하면 자신이 “프라짜오”의 칭호로써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50) 라자 응우가 反타이적인 태도로 돌아선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이 여왕과 관련된 몇가지 상황들이 그 배경을 추측케 한다. 우선 라자 응우는 빠향의 술탄인 압둘가푸르 모하이딘 샤(Abdul-Ghafur Mohaidin Syah : 1590-1614)와 결혼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 빠향은 조호르(Johor)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48)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p.13-14.

49) Jeremias van Vliet,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trans. L.F. van Ravenswaay, *Journal of the Siam Society*, 7,1 (1910), p.37. 반 블릿의 이 여행보고서가 1637-1638년 경에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 George Vinal Smith, *The Dutch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1977), p.126을 볼 것.

50)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16.

있었다. 둘째 라자 응우는 1612-1613년 경 딸 한 명을 조호르의 한 왕자에게 시집보냈다. 끝으로 라자 응우는 빠항 술탄과의 사이에서 난 딸을 처음에는 나콘시탐마랏의 한 타이 고위관리에게 시집보냈다가 뒤에 조호르 술탄과 결혼시켰다.<sup>51)</sup> 여기서 나타나는 라자 응우의 빠항과 조호르와의 깊은 관계에서 그녀의 강한 무슬림-말레이적인 성향을 추측할 수 있다.

라자 응우의 재위시대에 빠따니가 아유타야에 대한 반항을 실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시암이 왕위계승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혼란에 있었던 1629년 경부터였다. 17세기 초 아유타야 왕국의 정치적 발전을 서술한 반 블릿의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나콘시탐마랏은 빠따니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이것은 타이 정부가 일본인 관리 ‘옥야 세나피묵’(Oya Senaphimocq 즉 Okya Senaphimuk)을 그의 일본인 부대와 함께 나콘시탐마랏으로 파견한 한 이유가 되었다.<sup>52)</sup> 빠따니는 그후 곧 프라삿통(Prasat Thong : 1629-1656)이 1629년 9월에 유혈과정을 거쳐 왕위를 찬탈하여 시암의 왕이 되자 타이 정부에게 노골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라자 응우의 반타이 노선이 아유타야에서의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에 의해 어떤 정당성을 얻게된 셈이었고, 이를 통해 또한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53)</sup> 반 블릿에 의하면 라자 응우와 그 대신들은 정식왕위계승자들을 살해한 프라삿통을 시암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치 않았다.<sup>54)</sup> 다른 네델란드인의 보고에 의하면 빠따니의 여왕은 프라삿통을 심지어 “왕국을 강탈한 자, 악한, 살인자, 반역자”라고 불렀다.<sup>55)</sup> 빠따니 정부가 시암에 대해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는 반 블릿의 위의 서술들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라자 응우 외에 그 대신들, 특히 다

51) 위의 책, pp.14-16.

52) Jeremias van Vliet, “Historical Account of Siam in the 17th Century”, trans. W.H. Mundi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30,2 (1938), pp.131-132.

53) 1628-1629년 Prasat Thong의 왕위찬탈에 대해 Jeremias van Vliet, “Historical Account...”, p.97 ff.를 볼 것. 여기에 Dhiravat na Pombejra, “A Political History of Siam under the Prasatthong Dynasty 1629-1688” (Ph.D.diss, University of London, 1984), p.121 ff.를 비교.

54) Jeremias van Vliet,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p.37.

55)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17.

또 브사르의 역할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리하여 빠따니 정부는 金花와 銀花로 된 전통적인 공물(供物)인 'bunga mas dan perak' (bunga mas dan perak)을 아유타야에 보내는 것을 거부했으며, 1630년 중엽에 파탈롱과 나콘시탐마랏을 공격했다.<sup>56)</sup> 그러나 이 공격은 그 일본이름이 '야마다 나가마사'(山本長政)로 알려진 옥야 세나피묵의 군대에 의해 격퇴되었다.<sup>57)</sup>

1632년 빠따니를 방문한 네델란드인 안토네이 카엔(Antonij Caen)에 의하면 당시 말레이반도 전체가 소란한 상태에 있었다.<sup>58)</sup> 추측컨대 이러한 흐름에 함께 휩쓸려 그 사이 일본인들로부터 해방된 나콘시탐마랏 역시 1632년에 아유타야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쁘라삿통 정부는 태국남부 행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중요할 뿐만아니라 국제적인 무역항이자 주석 산지인 이 말레이 지방으로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1633년 초에 그 반란을 진압했다.<sup>59)</sup>

쁘라삿통은 이어서 빠따니에 대한 응징원정을 준비했다. 당시 빠따니는 조호르와 빠향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았고 말라카의 포르투갈인들과 연합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웃 말레이 지역들의 두려움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송클라는 1632년에 아유타야로 사신을 파견하여 빠따니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sup>60)</sup> 시암의 빠따니에 대한 1634년 초의 대규모 공격은 이처럼 군사적으로 만만치 않은 빠따니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빠따니에서 물러난 타이 군대는 송클라를 파괴했는데, 그것은 1633년까지만해도 아유타야에 조공을 바쳤던 이 술탄국이 그후 곧 빠따니 편에 붙었기 때문이었다.<sup>61)</sup> 시암은 1634년 말에 빠따니에 대한 더욱 큰 군사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측 간의 분쟁에 당시 시암

56) Jeremias van Vliet,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p.37.

57)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17. 山本長政에 대해 郡司喜一, 『徳川時代の日暹國交』(東京: 東亞經濟調査局, 1938), pp.35-44를 볼 것.

58) George Vinal Smith, 앞의 책, p.23.

59) Jeremias van Vliet, "Historical Account of Siam in the 17th Century", pp.142-143; Dhiravat na Pombejra, 앞의 논문, pp.146-147, 166.

60)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166-167; A. Teeuw & D.K. Wyatt, op.cit., pp.14-18; George Vinal Smith, 앞의 책, p.25.

61) Jeremias van Vliet, "Historical Account of Siam in the 17th Century", pp.148-149; Jeremias van Vliet,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pp.39-40;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177-179.

의 속국인 께다가 증재하여 화의를 제의했다. 이 제의는 결국 아유타야 정부 뿐만아니라 빠따니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는 빠따니에서의 왕위 교체가 한 요인으로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새로운 여왕 라자 꾸닝(Raja Kuning : 1635-1688?)은 1636년에 아유타야로 '붕가 마스'를 보냈고 다시 "프라짜오"의 칭호를 취했으며, 심지어 1641년에는 스스로 아유타야를 방문했다.<sup>62)</sup> 이로써 빠따니와 아유타야 간의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었다.

1640년대 중엽에 말레이반도에서 시암에 대항하는 소요의 물결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 진원지는 이번에는 송클라로서 1646년에 아유타야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티라왓 나 폼뻬트(Dhiravat na Pombejra)은 당대 문헌들이 이 반란의 배경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어서 그 반란을 송클라의 말레이-무슬림적인 동질성이 시암-불교적인 세계에 대항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sup>63)</sup> 그러나 이 태국의 역사학자는 이때 송클라로서는 한 쓰라린 경험이었을 1634년의 아유타야와의 충돌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특히 드 쇼와지(de Choisy)의 한 보고서를 참조하지 않았다. 1685년에 아유타야에 온 이 프랑스인에 의하면 한 말레이 무슬림이 1642년에 송클라의 권력을 장악한 후 反타이 정책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외무역을 장려하여 송클라의 경제력을 강화했으며 성벽을 더욱 견실히 증축하도록 했다.<sup>64)</sup> 우리는 이 자를 반란의 배후 인물로 간주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자는 아마 1633-1634년 송클라와 아유타야 사이의 악화된 관계에 그의 反타이 정책을 구축했을 것이다. 추측컨대 송클라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아유타야의 동의없이 왕위를 계승한 께다의 새로운 술탄 역시 1643년에 시암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1646년에는 송클라

62) Jeremias van Vliet,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p.37.41 ;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18; George Vinal Smith, op.cit., pp.27-28;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180-183. 당시 께다와 시암의 관계에 대해 Malcolm Dunn, 앞의 책, p.123을 볼 것.

63)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227-228.

64) François-Timoléon de Choisy, "Cotmaihet thueng kan khakhai nai india fai tawan ok 1686"(東印度에서의 무역에 대한 1686년 보고), in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43*, vol.25 (Bangkok, 1968), p.307.

의 반란에 합류했다.<sup>65)</sup>

쁘라삿통 정부는 1646년에 우선 지리적으로 파탈롱과 나콘시탐마랏에 가깝고 동시에 국제적 무역항인 송클라로 군대를 파송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648년 초의 재정벌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sup>66)</sup> 그 사이 께다는 1647년에 파탈롱을 습격하여 점령했다. 이 께다 사태는 이 지역의 주석 무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홀랜드동인도회사가 1648년에 해군력으로써 께다를 점령하고 시암에 복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해결되었다.<sup>67)</sup> 그러나 송클라의 반란은 그후 계속되었고, 뿌라삿통 정부가 1655년까지 송클라로 파견한 수차례의 원정들은 모두 실패했다.<sup>68)</sup>

타이 정부와 말레이 이슬람왕국들 간의 관계는 1656년 10월에 나라이(Narai : 1656-1688)가 시암의 왕위에 오름으로써 호전되었다. 네델란드인 얀 반 레익(Jan van Rijck)의 보고에 의하면 나라이의 등위이후 뿌라삿통 재위기간 시암과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빠따니, 빠항, 조호르와 다른 말레이 지역들로부터 화물을 실은 많은 배들이 아유타야에 입항했다. 그리고 이러한 말레이 정크들 가운데 몇 척에는 시암의 새로운 통치자에게 전통적인 공물인 '붕가 마스 단 빼락'을 바치기 위해 온 사신들이 탑승해 있었다.<sup>69)</sup> 1657년 1월에는 심지어 송클라도 아유타야로 조공사절을 파송했다. 나라이왕은 이 술탄국의 라자(rajā)가 몸소 와서 속국의 예를 바칠 것을 요구했으나, 송클라가 이에 응하지 않고 1658년에 다시 사절만 보내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up>70)</sup>

65) "Jeremias van Vliet to Governor Arnold Heussen (Malacca, 13. Oct.1644)", in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5 vols (Bangkok, 1915-1921), vol.2, p.6 ; George Vinal Smith, 앞의 책, p.32.

66) "Instructions to Commander Abel Jansen Tasman from the Council at Batavia (14.May 1648)", in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2, p.7 ; Dhiravat na Pombejra, 앞의 논문, pp.228-229.

67)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228-230 ; George Vinal Smith, 앞의 책, p.32.

68)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2, p.9 ff., 19 ;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231-240.

69)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276-277.

70) George Vinal Smith, 앞의 책, p.34 ;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이에 비해 같은 해에 께다가 보낸 사신은 나라이에 의해 영접되었다. 1659년에 송클라는 다시 한번 아유타야로 사절을 파송했는데, 이번에는 시암의 왕을 만족시켰다.<sup>71)</sup> 말레이반도의 여러 이슬람왕국들이 나라이왕 재위 초에 이처럼 아유타야 정부에게 복종한 것은 한편으로는 등위전부터 유지되어왔던 나라이와 말레이인들 간의 좋은 관계의 배경에서 설명될 수 있다.<sup>72)</sup>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나라이가 브라삿통에 비해 말레이인들로부터 적어도 시암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유타야와 말레이 세계 간의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미 1662년에 송클라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 나콘시탐마랏을 공격하여 아유타야에서 온 세 척의 타이 정크를 포획했다.<sup>73)</sup> 이 술탄국이 아유타야 정부에 대한 태도를 왜 이처럼 갑자기 바꾸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쨌든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나라이 등위후 조공문제로 인한 양측간의 긴장된 관계를 반영한다. 나라이 정부는 송클라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측컨대 당시 타이 정부가 라오스와 버마와의 전쟁으로부터 손을 들릴 여유가 없었던 것에 연유한다.

1670년대에 나라이 정부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말레이반도의 위기에 직면했다. 브라삿통의 재위때처럼 송클라와 빠따니가 가장 심한 반란을 일으켰으며, 소요가 시작된 곳은 빠따니였다. 이와 관련하여 1680년대 중엽에 4년동안 태국에서 활동했던 ‘파리해외선교회’(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소속의 니폴라 제르베즈(Nicolas Gervaise)신부는 말레이반도 동안에 위치한 태국남부 지역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암인들에게 속한 이 沿岸의 다른 유일한 주요도시는 송클라다. 이 도시는 이 나라에서 그 크기나 아름다움보다는 수년전에

p.277.

71) George Vinal Smith, 위의 책, p.34 ;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277, 282.

72) 등위과정에서 나타났던 나라이와 말레이인들 간의 좋은 관계에 대해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263을 참고.

73)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297.

이 나라의 왕에게 대항할 때 보여준 대담무쌍함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그 반란의 정신은 이웃인 빠따니 주민들에 의해 고취된 것인데, 빠따니 주민들은 천성적으로 난폭하고 방자하며 (타이)왕국의 공인된 적이다.”<sup>74)</sup>

홀랜드동인도회사의 문헌들에 의하면 빠따니는 1673년에 태국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아유타야로부터 파견된 타이 군대가 1674년 1월에 이 술탄국을 점령했다. 네델란드인들은 이어서 빠따니 여왕 궁정의 제2인자인 “섭정(regent)”과 그의 두 아들들이 반란의 책임을 지고 처형당했다고 말한다.<sup>75)</sup> 1673년 아유타야에 대한 이 빠따니 반란의 배경과 관련하여 ‘카이헨다이(華夷變態)’에 흥미로운 정보가 발견된다. 이 일본 사료 중 음력 1675년 6월 24일(양력 1675년 8월 15일)자의 한 빠따니 상선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빠따니라는 나라에는 옛날부터 왕위에 여자가 있는데 歷代로 내려오면서 나라의 정치에는 관여함이 없이 그냥 왕위에 앉아 있었다. 執權한 대신을 ‘三王’이라고 부르는데, 이 三王에게 수년 전부터 無道함이 있었다. 이에 臣下들사이에서 반역이 일어나 재작년 3월에 三王을 죽이고, 그 신하들 중 한 명이 三王의 지위에 올라 그 역시 ‘三王’이라고 불리웠다. 피살된 前三王의 아들들은 즉시 시암 영역내의 리고르(Ligor 즉 나콘시탐마랏)라는 곳으로 도망했다. 그리고 그들은 리고르 정부에게 군사 일만여 명을 빌려주기를 요청했다. 그들은 그해 4월 초에 陸海 양쪽으로 後三

74) Nicolas Gervaise, *Histoire naturelle et politique du Royaume de Siam* (Paris, 1688), pp.61-62. 1671년 2월 3일자의 한 영국문서에 의하면 1670-1671년 사이에 송클라와 빠따니는 상호 전쟁상태에 있었고, 께다가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라오스 원정에 신경을 쓰고 있던 나라이 정부는 추측컨대 순수하게 지역적인 이 분쟁에 개입치 않았다. 송클라와 빠따니 간의 이 전쟁은 말레이반도에서의 그 뒤의 정치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2, p.101을 볼 것.

75) Dhiravat na Pombejra, 앞의 논문, p.332. 여기에 1674년 10월 28일자의 한 영국문서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2, p.111)를 비교.

왕을 공격했다. 後三王은 패하여 빠따니와 리고르사이의 송클라라는 곳으로 살그머니 도망했다. 前三王의 적자(嫡子)가 이에 그 부친의 위치를 차지했다. 한편 송클라에도 정부가 있으므로, 後三王은 이 정부에 의뢰하여 역시 陸海軍 일만여 명을 빌려 前三王의 적자를 공격코자 했다. 우리의 배가 (빠따니를) 출항할 때에는, 수군(水軍)과 병선(兵船)들은 이미 해안에 도착했고, 육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사태가 그후에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sup>76)</sup>

이 보고가 말하는 바 당시 빠따니의 여왕이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정부의 실권이 한 대신에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니콜라 제르베즈의 여행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sup>77)</sup>

위의 보고는 비록 빠따니에서의 한 내란을 그 내용으로 두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당대 유럽인들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당시 시암과 빠따니 간의 관계와 관련지을 수 있다. 우선 1673년 3월의 거사(擧事)를 통해 빠따니의 권력을 장악한 신하는 처음부터 反타이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은 그의 쿠데타 후에 “前三王”의 아들들이 타이 영토인 나콘시탐마랏으로 도피했으며, 그 자신은 역습을 받은 후 송클라로 도망가 나콘시탐마랏 즉 시암의 지원을 받는 “前三王”의 적자의 빠따니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後三王”은 추측컨대 1673년 초의 쿠데타 후에 反아유타야 정책을 취했고, 이것은 시암 정부의 옹정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後三王”은 위의 홀랜드동인도회사의 문헌들이 말하는 反타이적이었던 “섭정”이나 그 주위의 다른 인물과 동일시될 수 있다.<sup>78)</sup> 그밖에 우리는 위의 일본 사료로부터 빠따니의 내란에 휩쓸린 송클라가 “後三王”을 나콘시탐마랏에 의해 지원되는 빠따니 정부에 대한 그의 싸움에서 군사적으로 도움으로써 아유타야 정부의 이해관계에 역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르베즈가 말하는 송클라의 시암에 대한 반란의 배경에 일치한다.

76) 『華夷變態』(東京：東洋文庫, 1958) 上冊, p.118. 음력의 양력환산은 鄭鶴聲編, 『近世中西史日對照表』(北京：中華書局, 1981)에 바탕을 두었음.

77) Nicolas Gervaise, 앞의 책, p.316.

78) 이로써 네델란드인들이 언급하는 “섭정”이 빠따니 반란의 주동자였는지 그리고 도무지 빠따니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당시 송클라의 시암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위에서 이미 언급한 홀랜드동인도회사의 문헌들은 빠따니 반란의 진압후에 “라자 만수르(Raja Mansur)”라는 자가 빠따니로부터 아유타야로 불러올라가 시암왕에 의해 파탈롱의 태수에 임명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때 시암왕은 이 자를 통해 아유타야가 송클라를 더욱 견고하게 통제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한다.<sup>79)</sup>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송클라가 1674년 경에 아유타야에게 복종을 거부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위의 빠따니 상선의 보고에서 암시되어 있는 송클라의 反시암적 태도와 시기상 일치한다. 그러나 이 송클라의 반란도 곧 해결되어, 1676년에 이 술탄국의 왕이 죽자, 그의 장남이 아유타야에 와서 송클라의 시암에 대한 속국의 관계를 다시 세웠고, 이때 시암왕으로부터 자신의 왕위계승에 대한 재가(裁可)를 받았다.<sup>80)</sup>

나라이 정부는 곧 다시 말레이반도의 문제와 싸워야 했는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빠따니와 송클라 뿐만 아니라 꾀다도 포함되었다. 한 영국동인도회사의 문서에 의하면 꾀다는 이미 1670년대 초에 3년간 아유타야에 대한 조공의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를 응징하기 위한 1673-1674년의 시암의 원정에 대해 방어준비를 할 정도로 뚜렷한 저항의 자세를 보였다.<sup>81)</sup> 그 저항의 동기가 불분명한 이 술탄국은 1676년과 1677년 사이에도 아유타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여 시암의 공격을 예기해야 했다.<sup>82)</sup> 1677년과 1678년 사이에는 빠따니와 송클라가 동시에 시암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빠따니의 이 새로운 반란은 추측컨대 송클라로 도망했다가 그사이 송클라 군대의 도움으로 다시 빠따니의 권력을 장악했을 ‘카이헨파이’의 “後三王”에 의해 주도되었다. 1677년 경에 빠따니가 조호르의 지원을 받아 나콘시탐마랏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빠따니와 조호르의 이러한 공동작전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시암과 조호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네델란드인들의 보고로부터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말레이반도 남단에 위치한 이 술탄국의 통치자가 예를 들어 1675년에 잠

79) Dhiravat na Pombejra, 앞의 논문, pp.332-333.

80)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333.

81)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2, p.108.

82) Dhiravat na Pombejra, 앞의 논문, p.337.

비(Jambi)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아유타야 정부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조호르는 1684년에는 심지어 나콘시탐마랏을 통해 아유타야로 조공을 보냈다.<sup>83)</sup>

나라이 정부는 1678년 경에 송클라와 빠따니에 대한 응징원정에 착수했다. 영국동인도회사의 새뮤얼 포츠(Samuel Potts)가 1679년 1월 22일에 송클라에서 쓴 서신에 의하면 송클라의 술탄은 이미 이 시점에서 시암의 공격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여 도시를 요새화하고 대포를 설치하며 식량을 마련해 놓았다.<sup>84)</sup> 그리하여 타이 군대는 첫 전투에서 패배했다. 게다가 나라이 재위 시대에 나콘시탐마랏처럼 태국의 한 지방으로 간주되었던 파탈롱도 그사이에 송클라의 반란에 가담했다.<sup>85)</sup> 그러나 1679년 말경 시암은 송클라에 대해 우세를 확보했으며 곧 송클라와 빠따니를 굴복시켰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이 술탄국들이 1680년 11월에 시암의 종주권을 다시 인정했기 때문이다.<sup>86)</sup> 이후 1688년 나라이왕의 재위 말까지 시암은 말레이 술탄국들의 반란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르베조신부는 1680년대에 송클라와 빠따니 뿐만 아니라 껀다와 조호르도 시암에 대해 조공의 의무를 갖고 있던 말레이 지역들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프랑스의 제수이트신부 부베(Bouvet)에 의하면 빠항 역시 1685년 경 아유타야와 조공관계에 있었다.<sup>87)</sup>

홀랜드동인도회사의 기록들에 의하면 1691년 경 빠따니에서 다시 한 번 반란이 일어났다. 아유타야의 페타라차(Phettharacha : 1688- 1703) 정부는 빠따니로 1691년과 1692년에 군대를 파견했으나 그 진압에 실패했다. 그

83)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334, 337, 368.

84)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2, p.214.

85) 나라이 시대 파탈롱과 아유타야의 관계에 대해 Luang Si Woranat, *Phongsawadan mueang phatthalung*,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15, vol.12 (Bangkok,1964), pp.27-28.을 볼 것.

86) Dhiravat na Pombejra, 위의 논문, pp.337-339; A. Teeuw & D.K. Wyatt, 위의 책, p.19.

87) Nicolas Gervaise, 위의 책, pp.61-62, 315 ; Père Bouvet, *Voiage de Siam*, ed. J.C. Gatty (Leiden: E.J.Brill,1963), p.90. 1685년에 아유타야를 방문했던 프랑스 사신 Chevalier de Chaumont, *Relation de l'Ambassade de Mr.le Chevalier de Chaumont à la Cour du Roi de Siam* (Bangkok, 1985), p.160 역시 껀다, 조호르, 빠항, 빠따니 등을 시암의 속국에 포함시킨다.

러나 그후 양측의 대립관계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타이 정부가 1694년에 아직 아유타야에게 복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심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던 빠따니에게 쌀과 다른 식량을 보낸 사실로부터 추측된다.<sup>88)</sup>

17세기 말부터 빠따니는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위의 식량부족은 그사이 가난하게 된 이 왕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여왕인 라자 꾸닝의 통치후 1688년 경 빠따니의 권력은 끝란탄 출신의 한 왕가에게로 넘어갔으며, 이 끝란탄 왕조가 1729년까지 빠따니를 다스렸다. 빠따니는 이미 17세기 말경 말레이 반도의 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이후 점차 태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흡수되었다.<sup>89)</sup>

## V. 결 론

우리는 앞장에서 태국이 17세기에 말레이반도의 이슬람왕국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이 지역들에 대한 아유타야의 전통적인 종주권의 요구가 표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태국과 말레이반도와의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 외에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인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동기들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인 동기는 위에서 언급한 말레이 지역들의 타이 해외무역을 위한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인 동기는 특히 송클라 및 빠따니와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지리적으로 나콘시탐마랏에 가까운 이 술탄국들의 반란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말레이반도 지방인 나콘시탐마랏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 이것은 다시 타이 남부영토의 위협을 의미했다.<sup>90)</sup>

말레이 술탄국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종 태국에 대한 조공관계를 자진하여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고려가 있

88) George Vinal Smith, 앞의 책, pp.44-45.

89) Werner Kraus, 앞의 논문, p.112.

90) 여기에 Dhiravat na Pombejra, 앞의 논문, p.337 및 Suwanthath-Pian Kobkua, *Thai-Malay Relations : Traditional Intra-regional Relation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17을 비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따니의 경우 시암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군사적으로 강할 때 아유타야에 조공을 보내고 그 종주권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추측컨대 시암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빠따니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태국만으로부터 말레이반도 동안(東岸)에 걸친 평화롭고 활발한 무역의 분위기를 보장할 뿐만아니라, 빠따니로서는 또한 이러한 강력한 시암에 의지하여 자신의 이웃국가들과의 안전한 대외무역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91)</sup>

한편 우리는 위에서 말레이 술탄국들이 아유타야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국내정치적인 혼란에 빠졌을 때 시암의 종주권을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특히 빠따니의 시암에 대한 군사적인 저항들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러한 패턴은 16세기와 17세기 태국과 캄보디아의 역사적인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92)</sup>

본 논문에서는 말레이반도의 여러 이슬람왕국들과 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그 각각의 술탄국과 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그러나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말레이 이슬람왕국들 상호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한 말레이 술탄국과 아유타야와의 관계에서 적잖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조사되지 않은 이 역할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타이-말레이 관계, 특히 17세기 아유타야와 빠따니, 송클라 및 께다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한가지 던져지는 물음은 이 말레이 술탄국들이 태국에 대해 저항을 보일 때 정치적, 경제적 동기 외에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말레이 무슬림적인 어떤 공속의식(共屬意識)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을 밝힐 정보의 파악과 획득이 쉽지 않을 것임은 짐작되지만, 이 요인 역시 태국에 대한 말레이 무슬림들의 저항 역사의 연구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91) A. Teeuw & D.K. Wyatt, 앞의 책, pp.13-14 비교.

92) 여기에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san prasoet akson*, pp.16-17, 21-22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pp.35-38; Adhémard Leclère, 앞의 책, pp.278-281, 341.

## 참 고 문 헌

- Andaya, Barbara Watson. *Perak. The Abode of Grace : A Study of an Eighteenth-Century Malay State*.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Bouvet, Père. *Voiage de Siam*. J.C. Gatty ed. Leiden: E.J. Brill, 1963.
- Chandler, David Potter. *A History of Cambodia*. Boulder, 1983.
- Charnvit Kasetsiri. *The Rise of Ayudhya: A History of Siam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Chaumont, Chevalier de. *Relation de l'Ambassade de Mr.le Chevalier de Chaumont à la Cour du Royaume de Siam*. Bangkok, 1985.
- Choisy, François-Timoléon de. "Cotmaihet thueng kan khakhai nai india fai tawan ok 1686." in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43*, vol.25. Bangkok, 1968.
- Chulalongkorn University (ed.). *The Inscription of King Ramkhamhaeng the Great*. Bangkok, 1983.
- Chronique de Xieng Mai*. M. Camille Notton trans. Paris, 1932.
- Dhiravat na Pombejra. "A Political History of Siam under the Prasatthong Dynasty 1629-1688."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1984.
- Dunn, Malcolm. *Kampf um Malakka : Eine wirtschaftsgeschichtliche Studie ueber den portugiesischen und niederlaendischen Kolonialismus in Suedostasien*. Wiesbaden, 1984.
- Frankfurter, O. "Events in Ayuddhya from Chulasakaraj 686-966."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6,3 (1909).



- Gerini, G.E. "Historical Retrospect of Junkceylon Island."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2,2 (1905).
- Gervaise, Nicolas. *Histoire naturelle et politique du Royaume de Siam*. Paris, 1688.
- Hall, D.G.E.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1981.
- Keyes, Charles Fenton. *Isan : Regionalism in Northeast Thailand*.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Kraus, Werner. "Der Islam in Thailand: Ueber die Entwicklung und Problematik des Islams in Suedthailand, den islamischen Modernismus und die separatistische Bewegung im Sueden." in Werner Draghun ed. *Der Einfluss des Islams auf Politik,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n Suedostasien*. Hamburg : Institut fuer Asienkunde, 1983.
- Leclère, Adhémard. *Histoire du Cambodge depuis le 1er siècle de notre ère*. Paris, 1914.
- Ma Huan. *Ying-Yai Sheng-Lan: 'The Overall Survey of the Ocean's Shores'*. J.V.G. Mills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Matos, Luís de. "The First Portuguese Documents on Siam." in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on the Occasion of the Celebrations of the Second Centenary of the City of Bangkok ed. *Thailand and Portugal : 400 Years of Friendship*. Lisbon, 1982.
-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anthanumat*.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64, vol.38, 39. Bangkok, 1969.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san prasoet akson*. in Ongkankha khong khurusapha ed.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lae phongsawadan nuea*, 2 vols. Bangkok, 1961.
-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Bangkok, 1971.
- Pinto, Fernao Mendes. *Merkwuerdige Reisen im fernsten Asien 1537-1558*. Stuttgart: Thienemann, 1987.
-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5 vols. Bangkok, 1915-1921.
- Reid, Anthony.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One: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 Si Woranat, Luang. *Phongsawadan mueang phatthalung*. Prachum phongsawadan phak thi 15, vol.12. Bangkok, 1964.
- Skinner, William G. *Chinese Society in Thailand : An Analytical Histo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57.
- Smith, George Vinal. *The Dutch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1977.
- Surin Pitsuwan. *Islam and Malay Nationalism : A Case Study of the Malay-Muslims of Southern Thailand*.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1985.
- Suwanthat-Pian Kobkua. *Thai-Malay Relations: Traditional Intra-regional Relation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Syukri, Ibrahim. *History of the Malay Kingdom of Patani*. Conner Bailey & John N. Miksic trans. Athens: Ohio University, 1985.

- Teeuw, A. & Wyatt, D.K. *Hikayat Patani: The Story of Patani*.  
The Hague, 1970.
- The Nation*. Bangkok (14.8.1993, 23.8.1993, 10.4.1994).
- Thien Subindu. "Intercourse between Burma and Siam as  
Recorded in Hmannan Yazawin Dawgyi." *Selected  
Articles from the Siam Society Journal*, vol.5 (1959).
- Uthai Dulyakasem. "The Emergence and Escalation of Ethnic  
Nationalism : The Case of the Muslim Malays in  
Southern Siam." in Taufik Abdullah & Sharon Siddique  
eds. *Islam and Socie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8.
- Van Vliet, Jeremias.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L.F.  
van Ravenswaay trans.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7,1 (1910).
- Van Vliet, Jeremias. "Historical Account of Siam in the 17th  
Century." W.H. Mundie trans.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30,2 (1938).
- Van Vliet, Jeremias. *The Short History of the Kings of Siam*.  
Leonard Andaya trans. Bangkok: The Siam Society,  
1975.
- Winstedt, Richard O. *A History of Malaya*. Singapore, 1962.
- Wyatt, David Kent. *Thailand: A Short Histor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4.
- Young, Gordon. *The Hill Tribes of Northern Thailand*. Bangkok :  
The Siam Society, 1962.
- 조흥국. "17세기 타이 역사 사료 연구 - 타이 사료들과 일본문헌 '카이헨다이  
(華夷變態)'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84집(1994. 6).
- 鞏珍. 『西洋番國志』. 北京: 中華書局, 1982.
- 《明史》(列傳 第212). 北京: 中華書局, 1977.

鄭鶴聲 編. 『近世中西史日對照表』. 北京: 中華書局, 1981.

郡司喜一. 『徳川時代の日暹國交』. 東京: 東亞經濟調査局, 1938.

『華夷變態』. 東京: 東洋文庫, 1958.